2022. 8. 18 (목)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변경 이벤트 전략
: 8월 중순 이후 진입 타이밍

오늘의 차트
조금씩 돌아오는 외국인, 아쉽지만 긍정적

칼럼의 재해석
경쟁이 치열해지는 Private 5G 시장 속 승자는?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퀀트/ETF
Analyst 이정연
02. 6454-4895
jungyeon.lee@meritz.co.kr
RA 최병욱
02. 6454-4876
byungwook.choi@meritz.co.kr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변경 이벤트 전략 : 8월 중순 이후 진입 타이밍

- ✓ 3, 9월 선물옵션만기일,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총 규모별 지수 정기변경 진행
- ✓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교체 수혜 그룹은 대형주에서 중형주 이동 종목군. 과거 기관수급 유입으로 주가 차별화 이어지는 패턴 반복
- ✓ 대형주 → 중형주 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일 T-20 시점 매수 후, 정기변경일 매도 전략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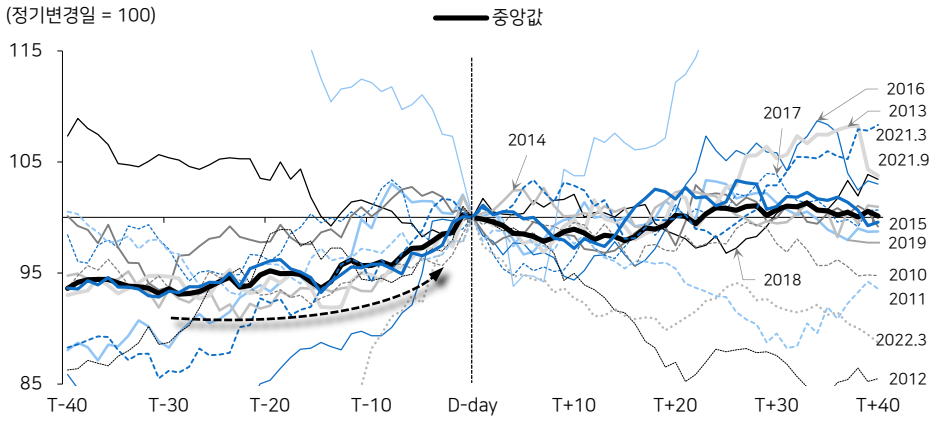
9월 9일 시총 규모별 지수 정기변경 진행, 중형주지수 편입 종목 집중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년 3, 9월 선물옵션만기일 익영업일에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9월에도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변경을 실시했다. 9월 정기변경의 경우, 6월부터 8월까지 일평균 시가총액 순서로 1~100위는 대형주, 101~300위는 중형주, 그 외는 소형주로 구분한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에 주목

해당 이벤트 전략은 '대형주 → 중형주' 이동종목에 주목해야 한다. 대형주 지수는 비슷한 대표지수(코스피200)가 있어 지수이동에 따른 수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중형주 지수는 중소형종목을 투자하는 펀드가 선호하는 벤치마크 지수이다. 특히, '대형주 → 중형주' 이동종목은 지수 내 비중이 커 수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해당 지수변경은 9월 9일에 실시되나 심사가 끝나가는 8월 중순부터 수급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매매 전략과 예상 종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1 '대형주 → 중형주' 변경 종목군 주가 추이_정기변경일 전후(±2개월)



주: D-day 기준은 연도별 지수변경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 '용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로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 지수변경 전후기간 동안 기관수급 유입

2010년 이후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케이스 분석을 통해 기관 수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지수변경 전후(±2개월)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은 14번의 케이스 중 12번 기관 수급 유입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중형주 → 대형주' 이동 종목군은 13번 모두 기관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중형주 지수는 중소형주 펀드 투자자가 선호하는 벤치마크 지수 따라서 중형주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수급 효과 빈번히 발생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은 중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중소형주 펀드의 투자 유니버스로 새로 포함된다. 또한 중형주 지수에서의 비중이 상위에 위치함에 따라 추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관 수급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기초지수로 대형주지수가 아닌 코스피 200을 주로 추종한다. 따라서 '중형주 → 대형주' 이동 종목군은 중형주지수 수급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 수급 변화가 주가 차별화로 이어지는 패턴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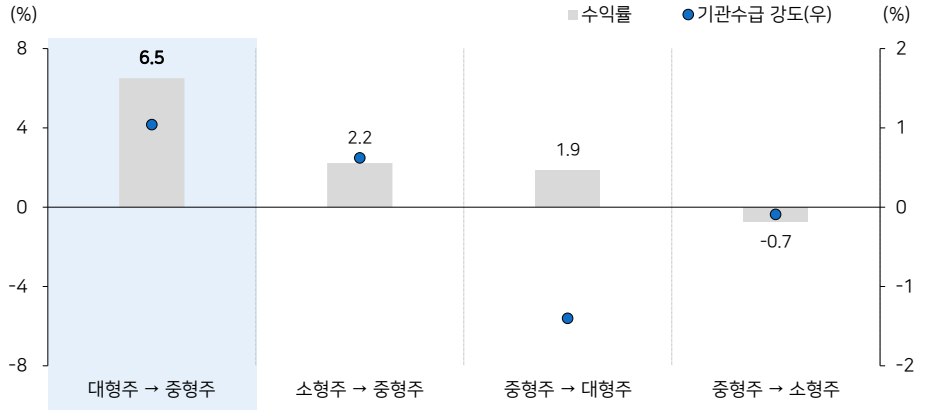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종목군은 14번의 케이스 중 12번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6.5%p, 중간값)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변경 이벤트 전후 높은 확률로 이와 같은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남에 따라 중형주 지수에 큰 비중으로 새로 편입되는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 수급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1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변경 개요

항목	내용
분류기준	▪ 코스피 구성종목 대상(심사대상기간 신규 상장종목 제외) ▪ 9월 정기변경: 전년도 12월 ~ 당해년도 2월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
정기변경일	▪ 매년 3, 9월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 결제월 최종거래일 다음 매매거래일
대형주	▪ 일평균 시가총액 1위 ~ 100위
중형주	▪ 일평균 시가총액 101위 ~ 300위
소형주	▪ 그 외 종목 코스피 종목

자료: 한국거래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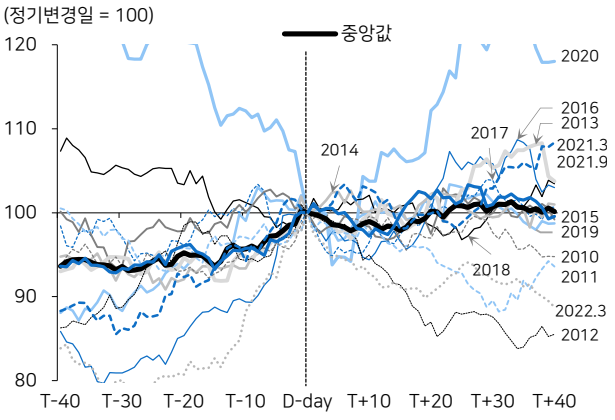
그림2 지수변경 전후(±2개월) 지수 이동 종목군의 기관수급 강도, 수익



주: 1) 지수변경 2달전 ~ 지수변경 2달후 기간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 2010년 이후 중앙값 기준
2) 기관수급 강도는 '(누적 기관순매수/일평균 시가총액, 종목 중간값)'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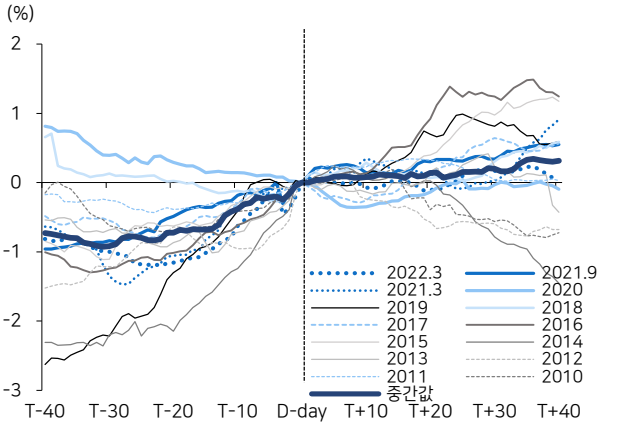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가 추이 비교: 대형주 →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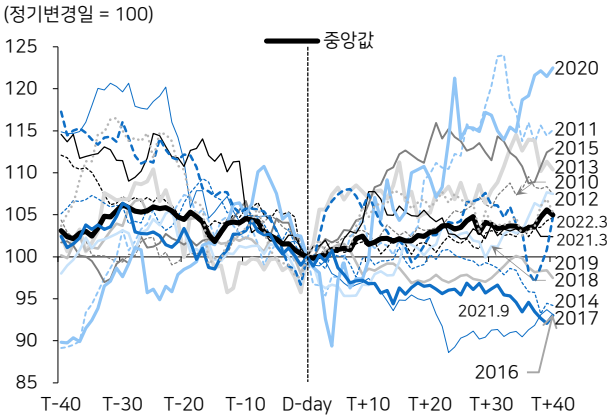
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대형주 →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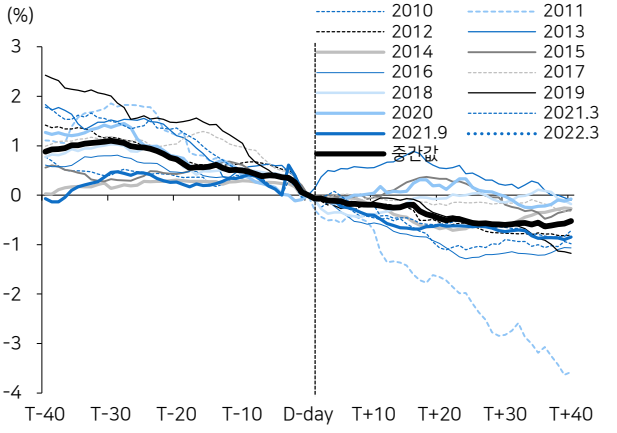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가 추이 비교: 중형주 → 대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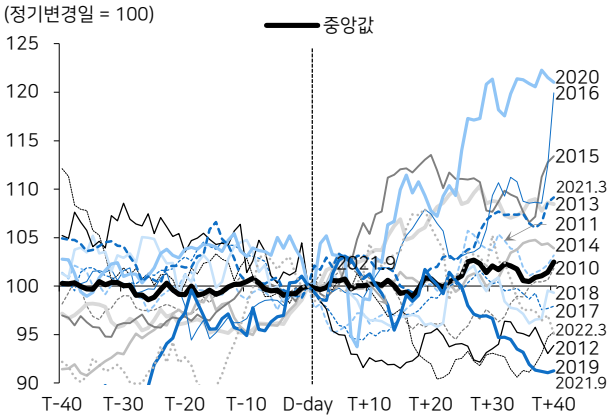
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중형주 → 대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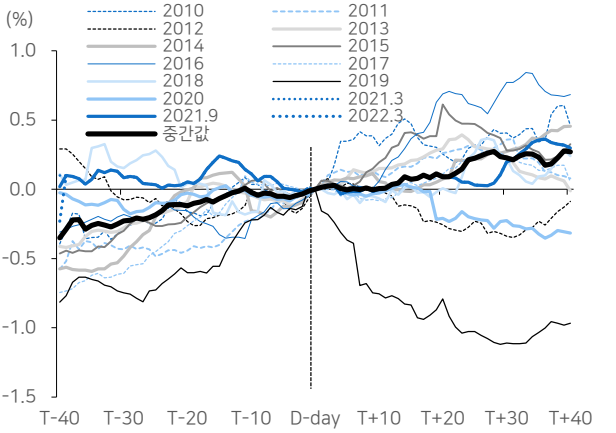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가 추이 비교: 소형주 →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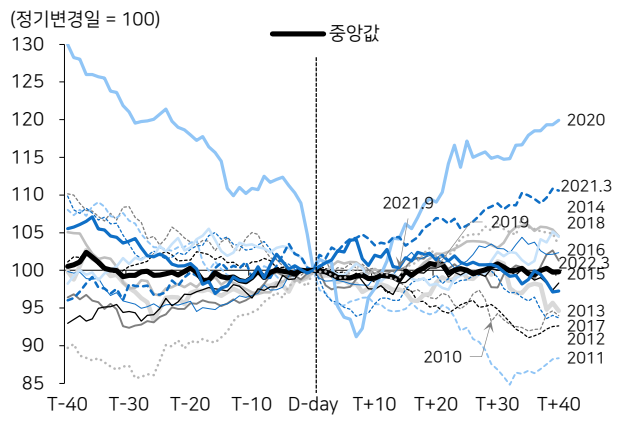
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소형주 →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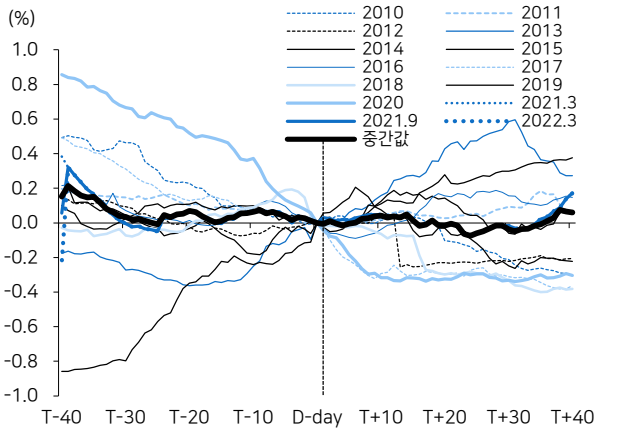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가 추이 비교: 중형주 → 소형주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중형주 → 소형주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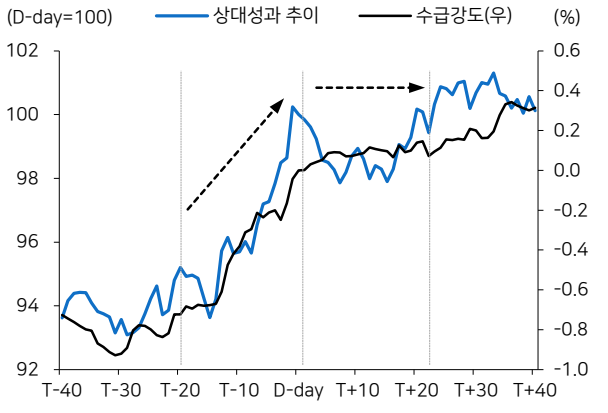
시총 규모별 정기변경 매매전략: 대형주 → 중형주 종목 한달 전 매수

정기변경 한달전 중형주 이동종목 매수 → 정기변경일 매도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매매 진입타이밍을 알아보도록 하자. 과거 패턴상 적어도 20매매 거래일전 중형주 편입 예상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정기변경 한달 전부터 정기변경일 까지 대형주 → 중형주 종목군은 평균적으로 4.8%p 초과수익률을 기록했으며 0.7% 수급강도가 나타났다. 정기변경 한달 전은 시가총액 평가 기간이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중형주 예상 편입 종목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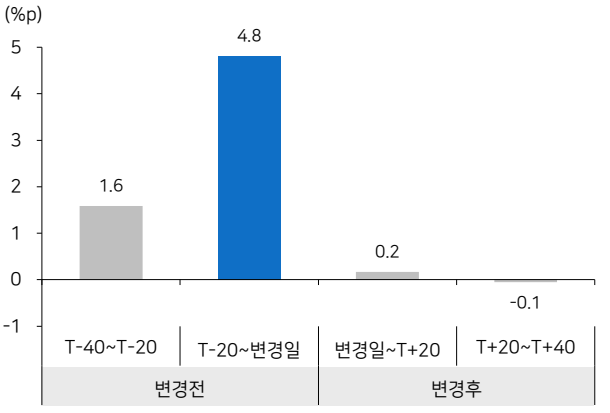
다만, 정기변경일 이후부터는 뚜렷한 기관 수급 유입이 없었으며 주가 또한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즉, 정기변경일 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고, 지수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진입한 투자자들이 정기변경 이후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일주일 간의 단기 조정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지수 변경 한달전 매수 이후 정기변경일에 청산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한 매매타이밍이다.

그림11 대형주 → 중형주 편입종목 주가 추이, 수급 강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대형주 → 중형주 편입종목 기간별 성과_상대수익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2년 9월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 5개 예상

대형주 → 중형주 5개 종목 이동, 과거대비 적은 수준

과거 평균적으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수는 10개 내외이다. 이번 정기변경에서는 5개 종목이 이동할 예정이다. 올해 종목간 시가총액 순위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과거 대비 이동 종목수가 적다.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이 있었던 건설, 유틸리티 업종과 7월이후 지수대비 상승폭 낮았던 반도체 종목이 중형주로 이동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의 일평균 시총기준 순위는 101위로 간신히 중형주로 편입되며 100위인 현대해상과 156억원 시총규모 차이가 난다. 최근 가격 모멘텀으로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와 현대해상의 순위 변경없이 한미사이언스는 중형주, 현대해상은 대형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표2 중형주 편입종목 리스트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주가	수익률		일평균 거래대금	기관 순매수/시가총액	
				22/8/17	22/8/17	1개월	3개월	최근 20일	5일 누적	20일 누적
				(십억원)	(원)	(%)	(%)	(십억원)	(%)	(%)
대형주 → 중형주	A008930	한미사이언스	건강관리	2,772	40,400	0.8	-14.2	4.3	0.0	0.0
	A006360	GS건설	건설,건축관련	2,721	31,800	14.8	-19.3	25.8	0.6	-0.2
	A002380	KCC	건설,건축관련	2,764	311,000	17.4	-9.5	21.3	0.2	0.0
	A052690	한전기술	유틸리티	2,782	72,800	13.0	-4.7	38.0	0.5	0.3
	A000990	DB하이텍	반도체	2,009	45,250	5.0	-37.5	55.5	-0.3	-1.7
소형주 → 중형주	A007460	에이프로젠 MED	기계	1,130	1,485	-3.6	-5.4	8.56	0.0	-0.2
	A004690	삼천리	유틸리티	854	210,500	13.5	52.5	2.71	-0.1	-0.4
	A005420	코스모화학	화학	744	21,250	39.8	38.8	14.4	1.3	2.6
	A003030	세아제강지주	철강	659	159,000	20.0	-0.6	4.33	0.2	1.1
	A017960	한국카본	조선	615	14,000	14.8	10.2	11.93	0.3	1.5
	A000370	한화손해보험	보험	577	4,940	13.6	11.8	3.26	0.3	1.7
	A293940	신한알파리츠	은행	576	7,800	1.0	2.0	1.07	0.0	-0.1
	A000400	롯데손해보험	보험	518	1,670	4.7	-11.6	0.95	0.0	0.0
	A093050	LF	화장품,의류,완구	509	17,400	14.5	-13.2	0.95	0.2	0.5
	A001060	JW중외제약	건강관리	503	22,700	-8.1	-8.3	4.76	-0.5	-0.5
	A357120	코람코에너지리츠	은행	498	5,630	2.9	-14.7	1.17	-0.1	-0.9
	A002240	고려제강	철강	488	21,200	8.2	-25.5	2.8	-0.1	-0.1
	A025860	남해화학	화학	487	9,800	7.1	-30.0	18.76	0.0	-1.0
	A033240	자화전자	IT하드웨어	487	24,600	-5.2	-15.5	11.25	0.1	-0.4
	A306200	세아제강	철강	465	164,000	9.7	-12.5	4.71	-1.6	-1.2
	A004430	송원산업	화학	460	19,150	-2.3	-25.5	7.78	0.1	-5.2
	A007570	일양약품	건강관리	446	23,350	-2.7	-2.3	2.22	0.0	0.0

주: 2022년 6월 1일 ~ 2022년 8월 17일 종가 기준 예상 종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대형주, 소형주 편입종목 리스트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주가	수익률		일평균 거래대금	기관 순매수/시가총액	
				22/8/16	22/8/16	1개월	3개월	최근 20일	5일 누적	20일 누적
				(십억원)	(원)	(%)	(%)	(십억원)	(%)	(%)
중형주 → 대형주	A010620	현대미포조선	조선	4,374	109,500	37.7	37.1	24.54	-0.3	-0.5
	A001450	현대해상	보험	3,040	34,000	6.4	9.9	12.78	-0.4	-0.3
	A010060	OCI	화학	3,017	126,500	9.1	15.5	49.15	0.6	-0.2
	A028670	팬오션	운송	2,983	5,580	7.9	-29.6	28.56	0.0	-0.4
	A282330	BGF리테일	소매(유통)	2,878	166,500	-10.2	-13.7	7.23	-0.3	-0.3
중형주 → 소형주	A183190	아세아시멘트	건설,건축관련	479	12,300	22.4	0.0	3.1	0.2	0.7
	A161000	애경케미칼	화학	467	9,600	24.2	-2.1	1.12	-0.1	-0.1
	A003070	코오롱글로벌	건설,건축관련	461	18,300	22.8	-8.0	1.05	-0.2	-1.6
	A001820	삼화콘덴서	IT가전	452	43,500	5.2	-15.2	8.12	0.0	-0.2
	A145990	삼양사	필수소비재	447	43,300	8.4	-17.2	1.26	-0.1	-0.4
	A006390	한일현대시멘트	건설,건축관련	446	25,100	8.2	-16.8	0.6	-0.1	-0.2
	A034830	한국토지신탁	은행	436	1,725	12.8	-14.8	1.84	0.0	0.0
	A286940	롯데정보통신	소프트웨어	426	27,700	4.9	-9.5	1.66	0.0	-0.1
	A012630	HDC	건설,건축관련	422	7,060	10.3	-2.9	1.85	-0.1	-0.2
	A030610	교보증권	증권	420	6,500	7.3	-11.6	0.29	0.0	0.0
	A115390	락앤락	비철,목재등	418	8,100	3.3	-16.4	0.73	-0.1	-0.9
	A033270	유나이티드제약	건강관리	417	25,700	4.5	-6.9	4	0.2	0.5
	A108670	LX하우시스	건설,건축관련	415	46,300	15.8	-9.9	2.95	-0.1	0.0
	A071840	롯데하이마트	소매(유통)	397	16,800	3.1	-22.0	0.56	-0.2	-0.4
	A003580	HLB글로벌	필수소비재	379	8,950	-9.0	19.5	18.64	0.0	0.0
	A020120	키다리스튜디오	소프트웨어	365	9,980	9.0	20.1	6.47	-0.2	-0.6
	A026890	스틱인베스트먼트	은행	355	8,520	18.0	-8.3	4.62	0.0	0.0
미분류 → 소형주	A404990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은행	271	4,835	-3.7	-12.1	0.68	-0.3	-0.6
	A417310	코람코더원리츠	은행	222	5,500	6.8	-11.0	1.39	0.0	0.0
	A396690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은행	144	4,970	8.9	-22.0	0.51	0.0	-0.3
	A357430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은행	133	4,995	-0.3	0.0	1.14	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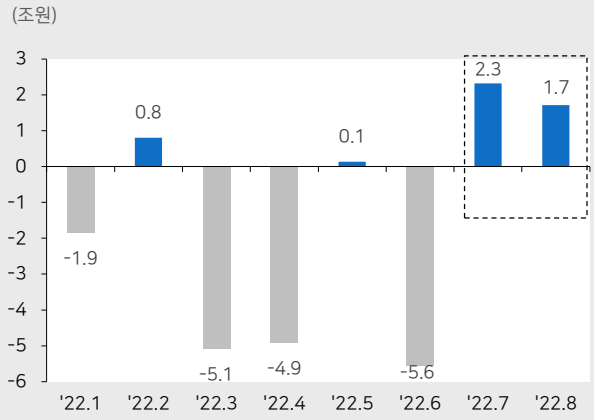
주: 2022년 6월 1일 ~ 2022년 8월 17일 종가 기준 예상 종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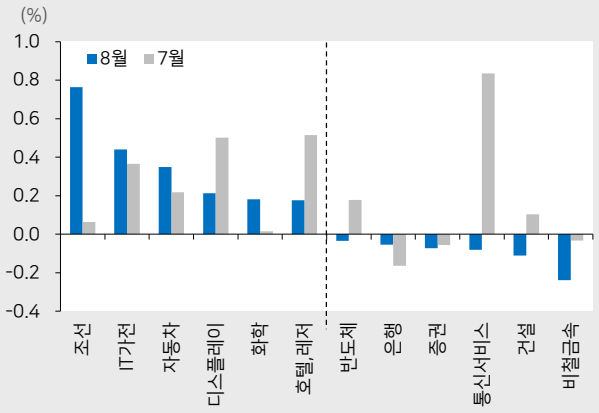
최병욱 연구원

조금씩 돌아오는 외국인, 아쉽지만 긍정적

<월별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금액_2022년>



<업종별 7,8월 순매수강도>



주: 순매수강도=(순매수금액/시가총액)*100, 업종별 순매수강도는 상하위 6개 업종만 표기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7월 2.3조원, 8월 1.7조원

외국인은 '20년, '21년에 이어 '22년에도 6월까지 코스피를 16.5조원을 순매도하며 매도세를 이어갔으나 7월, 8월 각각 2.3조원, 1.7조원을 순매수했다. 7월 2.3조원 순매수는 올해 가장 높은 순매수세고, 8월 1.7조원 또한 7월을 제외한 최고치다. 그러나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7월과 8월 외국인 수급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월, 연초 이후 순매도하며 비중 낮춘 업종 위주 순매수

7월 외국인 순매수를 수급강도(순매수금액/시가총액)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0.9조원 순매수를 기록한 반도체와 0.7조원 순매수를 기록한 IT가전이 전체 순매수를 이끌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초 이후 순매도가 지속되며 지분율이 크게 낮아진 코스피 대표업종 위주로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보인다.(연초 이후 6월까지 반도체 10.0조원, IT가전 6.2조원 순매도)

8월, 실적 발표 및 향후 전망치에 따른 움직임

8월 외국인 자금은 대체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실적 및 향후 이익전망치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8월 순매수강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조선, IT가전, 자동차다. 각각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익전망치가 상향조정되거나(조선, 자동차), 향후 가이던스가 상향된(IT가전) 업종이다. 반면 반도체는 '23년 이익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며 외국인 자금 또한 순유출됐다.

규모는 작으나, 실적에 대한 반응성 긍정적

물론 '20년 24.5조원, '21년 26.7조원 순매도에 비해 4.0조원 순매수는 그 규모가 작다. 대표종목인 삼성전자 7월 순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8월에 순매도세로 전환한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정점 및 경기침체 완화 기대국면에서, 그간 큰 반응이 없던 실적에 외국인 자금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기존 매크로 리스크 불안 완화 가능성 시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만하다.

칼럼의 재해석

김민영 연구원

경쟁이 치열해지는 Private 5G 시장 속 승자는? (MIT Technology Review)

5G 특화망은 2019년부터 Private 5G라는 이름으로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어 왔다. 국내는 작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 이후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6월 '5G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5G 특화망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초를 마련하고, 의료, 물류, 에너지, 재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5G 특화망은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구축 또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설비를 이용하여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설 네트워크로, 에너지 · 자원, 제조 · 공급망 · 배송,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생산 효율화를 위한 생산 라인 자동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과 활용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특화망용 장비나 단말기, 주파수 등과 관련된 기술적 · 제도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5G 특화망 시장은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동통신사, 비통신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G 특화망 성장은 하드웨어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5G 특화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Private 5G의 본격 확산

국내 Private 5G, 5G 특화망의 본격 확산

5G 특화망은 2019년부터 Private 5G라는 이름으로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어 왔다. 국내는 작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 이후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작년 12월 네이버가 5G 특화망 1호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가 5G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 정부는 5G 특화망에 '이음 5G'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난 6월 '5G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총 4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5G 특화망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의료, 물류, 에너지, 재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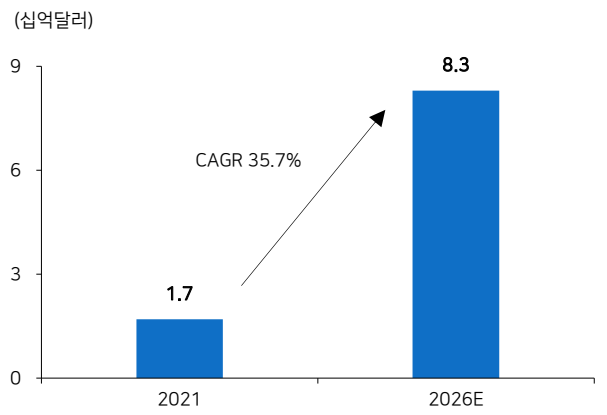
그림1 5G 특화망 분야별 서비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의 정의와 사례

5G 특화망은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구축 또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설비를 이용하여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설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일반 기업은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글로벌 Private LTE/5G 무선 인프라 시장 매출은 2021년 17억달러에서 2026년 8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조 공정 자동화, 원격 제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5G 특화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테크닉은 5G 특화망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항공기 주요 부품을 촬영하고, AR 솔루션으로 원격 진단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국내는 네이버가 최초로 제2사옥에 5G 특화망을 구축해 클라우드를 로봇 두뇌로 사용하여, 사옥 내 택배나 음료를 배달하는 데 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자원, 제조/공급망/배송,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림2 글로벌 Private LTE/5G 무선 인프라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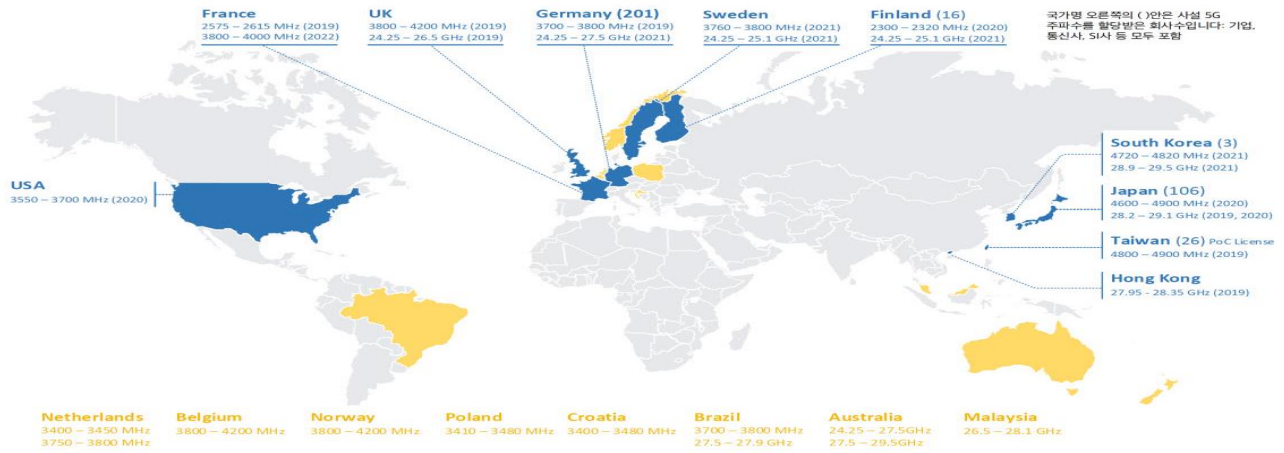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5G 특화망과 5G 이동통신망 비교

구분	5G 특화망(Private 5G)	5G 이동통신망
서비스 범위	생산 기지, 건물 등	전국
서비스 기업	수요 기업, 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서비스 대상	수요 기업, 기관, 기업 고객(B2B)	이동통신 가입 소비자(B2C)
주요 활용처	스마트팩토리, 원격 제어 등	음성, 데이터 중심
주파수 대역	4.7GHz , 28GHz	3.5GHz, 28GHz

자료: LG C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글로벌 Private 5G 주파수 상용화 현황



주: 22.06.07 기준, 파란색 표기는 Private 5G 주파수 상용화한 국가, 노란색 표기는 Private 5G 주파수 상용화 준비중인 국가
자료: netmanias

5G 특화망이 열어줄 기회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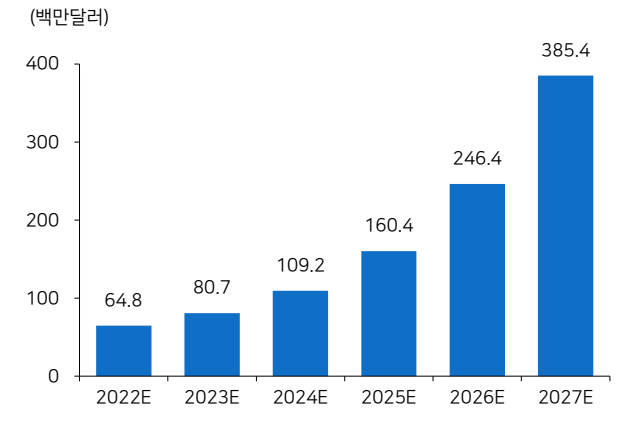
5G 특화망은 세가지 방식으로 구축 가능

5G 특화망은 공중 5G망과 달리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한정하여 연결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네트워크이다. 5G 특화망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중 5G망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 구축해줄 수도 있고(이동통신사 5G 특화망), 기업이 와이파이처럼 스스로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로컬 5G 특화망). 독일 등 Private 5G 구축 사례를 보면, 수요기업들은 1) 기업이 직접 구축, 2) 구축/운영 해주는 SI업체 이용, 3) 이동통신사업자의 Private 5G 서비스 이용 등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5G 특화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양한 사업자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기여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동통신사, 네이버클라우드, LG CNS와 같은 비통신사업자, 통신장비 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들은 기존 5G망을 활용하여 B2B 서비스를 제공, 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G 특화망 성장은 하드웨어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Ericsson은 "Ericsson Private 5G (EP5G)", Nokia는 "Nokia Digital Automation Cloud (NDAC)"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Private 5G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에치에프알은 5G CPE/모뎀부터 5G SA RAN & Core, 기업용 응용, 비즈니스 플랫폼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5G 특화망/사설망" 솔루션인 "my5G"를 출시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SI사인 NESIC과 5G 솔루션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화망 관련 매출 발생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 효율화를 위한 생산 라인 자동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과 활용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특화망용 장비나 단말기, 주파수 등과 관련된 기술적 · 제도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5G 특화망 시장은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4 국내 5G 특화망 시장 규모



자료: 그랜드뷰리서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기업별 5G 특화망 관련 주요 제품

기업	제품
삼성전자	라디오 기지국, 컴팩트 매크로(5G 통합형 기지국)
에릭슨	Ericsson Private 5G (EP5G), 5G 라디오 닷(스몰셀)
노키아	Nokia Digital Automation Cloud (NDAC)
에치에프알	my5G 솔루션
우리넷	이음 5G IoT 모듈
LG전자	5G 특화망 모듈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5G private networks enable business everywhere (MIT Technology Review)*